

축산식품의 윤리

Ethics of Animal Originated Foods

이 무 하 (Mooha Lee)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담당 부원장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Vice-President for Members' Affairs, Korean Academy of Science & Technology

식품과 윤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매우 광범위한 단어이다. 윤리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며 학문적으로는 “인간 행위의 규범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윤리는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해 윤리의 목적이 실천임을 나타냈다. 따라서 윤리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진다. 하나는 실행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목표하는 것이 선한 혹은 좋은 삶(good life)이라는 것이다. 행동이란 상황의 문맥이 혼자 일 때가 아니고 항상 타인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한 혹은 좋은 삶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구성원 모두의 좋은 삶을 위한 것이 윤리의 진정한 의미가 된다. 식품이란 인간에게 기아를 해결해주고 생명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수단이 되어줌으로써 매우 중요한 사교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은 식품을 즐거움을 제공하는 방법의 하나로 선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가 식품 윤리라고 말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식품과 관련하여 생산, 유통, 가공, 소비 할 때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삶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행동에 관한 분석과 지침을 제공하는 복합 학문 분야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식품을 생산하고 가공, 유통하고 나아가서는 소비 할 때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난 세기동안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는 획기적으로 변화해 왔다. 농업, 식품산업 및 유통산업에서의 기술발전은 식품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급격히 변화시켰다. 더욱이 무역, 공중보건 및 식품소비 경향에서의 세계화, 도시화 및 정치사회적인 변화는 우리 인간의 식품의 활용과 식품에 대한 생각을 변형시켰다.

표 1. 식품윤리에서 3 가지 원칙과 대상의 관계(Mepham, 1996)

| | 복지 | 도덕적 독립 | 정의 |
|--------|-----------------|---------------|------------------|
| 대상 유기체 | 동물복지 등 | 행동의 자유 | 목적의 존중 |
| 생산자 | 충분한 수입과 작업환경 | 채택 혹은 미채택의 자유 | 거래 및 법에서의 공평한 대우 |
| 소비자 | 안전한 식품의 제공 및 수용 | 선택의 존중 | 보편적 식품구입능력 |
| 생물상 | 생물상의 보존 | 생물다양성 유지 | 생물상 총수 지속성 |

*Corresponding author: Mooha Lee
 Professor emeritus, Seoul National University/
 Vice-President for Members' Affairs, Korean Academy of Science & Technology
 Tel: +82-31-710-4602
 Fax: +82-31-726-7909
 E-mail: michael81348@gmail.com

2050년에는 지구의 인구가 90억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에 따라 식량생산은 현재의 거의 2배에 이르러야 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그러나 현재 상태를 보면 지구의 한쪽에서는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식품 소비를 줄이려고 국가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지구의 다른 한 편에서는 굶어죽거나 영양부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전 세계적으로 비만한 인구의 수가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보다 더 많다는 불균형한 사태를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인지는 우리의 태도에 달렸다. 전 지구적인 식량생산, 유통과 소비, 식품관련 기술 및 사회적 변화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불균형을 점점 더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 윤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 윤리적 차원에서 관심은 첫째, 동물복지의 결핍 같은 식품 사슬에서의 윤리적으로 의심스러운 구조적 특성, 둘째, 믿을만한 정보의 부재 혹은 왜곡된 정보, 셋째, 식품 사슬에 참여할 수 없음 즉, 소비자가 식품 사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문제이다. 첫 번째 관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주제들은 식품의 안전성(예: 축산에서의 홀몬제나 항생제 사용), 식품 품질, 식품의 건강성, 동물 복지(예: 사육, 수송, 도축, 가축 및 축산물 수입 및 수출 등), 식품생산의 자연경관 품질에 대한 영향, 식품 생산의 환경영향, 농부의 정당한 대우(예: 개도국 및 선진국 작업환경) 등이다. 두 번째 관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생산자와 감독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이다. 나아가서는 식품을 윤리적으로 선택함에 있어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적절한 정보를 기대한다. 예를 들면 중립적인 정보가 아닌 유기생산 혹은 저지방 제품 등과 같은 선호나 가치의 다원성을 요구한다. 세 번째 관심사의 내용은 식품 사슬에서 소외되었다는 감정이 확산되어 있음으로써 많은 소비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고자 하여 식품 정책에 참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여러 가지 윤리적 관심사를 대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소비자들은 윤리적 경향, 태도 및 구매

행태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생산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식품윤리 문제는 불공평한 분배와 영양적 불균형으로 인한 기아를 기본으로 하고 식품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다원성을 근간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현대 선진국 소비자들은 대부분이 더 이상 식품 생산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산과정에 대한 지식은 더욱 더 적어지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신뢰도 더욱 약화되고 있다 반면에 식품은 소비자들에게는 본질적인 재화로서 금전적 가치뿐만 아니라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가치를 지닌 개인적 삶 속에서 질적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금 추세로 생산자가 추구하고 있는 것과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과의 간격이 커지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이 어떻게 생산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80년대부터 서구사회에서는 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정치적 주제가 되었다. 이 전에는 식품은 분배의 문제로 인한 지구상의 다양한 지역에서의 식량부족 사태가 윤리적 문제로 대두 되었을 뿐 정치적이었던 적이 없었다. 식품은 양적으로 많던 적던, 소비하기에 안전하던 하지 않던 간에 인간을 위한 근본적인 연료로서 인식되어 식품 안보가 문제로 고려되어 왔다. 더욱이 식품은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중립지대에 속하는 것으로 설정되었고 품질은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산업계, 정부 그리고 소비자 단체 간의 책임 한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산업계는 생산과 다양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정부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소비자 단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식품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식품 입수 가능성과 공평한 획득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광우병, 다이옥신, 구제역 및 기타 식품 안전사고들로 인한 식품 대참사는 단순한 식품 안전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위기를 야기했다. 이러한 사태들은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여 소비하는 지역과 최종 식품재료들이 생산되는 먼 곳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간격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생산과 소비 사이의 벌어지는 간격은 다양한 종류의 윤리적으로 수용되지 못하는 생산관행을 채택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소외감을 증가시키

고 식품 산업의 다양한 역할자들의 동기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식품은 점점 더 정치적 주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정책 수단과 마케팅 전략들은 식품 생산에 대한 윤리적 관심을 새롭게 불러일으키는 데에 일익을 하였다. 아울러 중산층 소비자들이 증가한 것과 비정부기구(NGO)들이 다국적 기업들의 특정 활동이나 식품 생산방법에 대한 항의 수단으로 혹은 특정 윤리적 기준이나 정치적 협의사항을 권장하는 기관들의 마케팅 수단으로 인해 식품윤리는 형성되었다. 물론 이러한 윤리적 지향이 추구된 방법은 소비자와 그들의 가치관이 언론이나 정보 및 마케팅 활동에 의해 구체화 되었다. 우리가 식품윤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품관련 윤리의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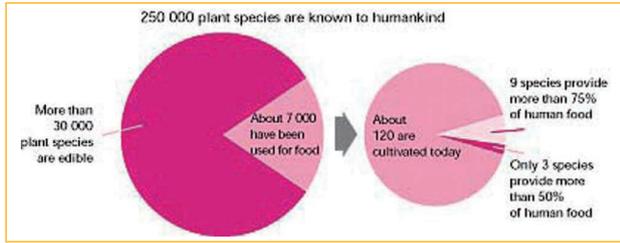
1) 농식품 윤리의 역사

세상에는 식품과 먹는 행위를 윤리와 도덕에 연계시키는 오랜 전통들이 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볼 수 있는 식생활 관련 금기, 의미, 가치 또는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혹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 지에 대한 사항들이 이에 속한다. 고대 그리스의 윤리학 관련 문헌 중에서 식이요법학(dietetics)은 의료 윤리나 성적 윤리와 대등하게 중요성을 지녔다. 중용의 생활이 강조되었고 따라서 자연의 법칙에 맞춰 생활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식품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였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영혼을 위해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소비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때 식생활은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을 보면 근본 도덕적 논리는 중용이 아니고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거나 이었다. 이러한 특정 식품의 허용과 금지의 논리적 배경은 건강, 위생, 기타의 실용적인 이유이기보다 임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도덕적 논리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지 법이 소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 식품이 건강에 나쁘다거나 맛이 없다거나 소화시키기 힘들다거나 하는 이유가 아닌 근본이 오염되었다는 종교의 원칙이 식품 윤리의 역사에 새로운

매우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 과학적인 논리로 해석을 해 보면 돼지고기 같은 경우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더운 사막 기후에서는 쉽게 상해서 사람들에게 위험할 수 있고, 식량을 아껴 소비해야하는 유목민과 사료를 경쟁하게 되는 단위동물인 돼지의 사육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일 것이므로 돼지고기의 소비를 종교로 금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윤리적 귀결로 보인다. 로마 시대와 초기 기독교 시대 저술가들도 마찬가지로 식품 소비의 도덕적 측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예수 시대의 기독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에 더 조심하라는 가르침이 강조되어 먹는 것 자체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중세에는 식품 소비는 도덕적 훈련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수도원에서는 금식 훈련이 육신의 고행과 욕망의 제거 및 세속과의 단절을 목표로 이행되었다. 수도 생활뿐만 아니라 일반 신도들에게도 금육일이나 금식 시기를 적용하기 시작하여 4세기에는 사순시기에 40일의 금식일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시기적으로 농작물의 부족과 풍요와 맞물려 있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수도원적 식품윤리는 도덕적 비판에 직면한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고대 로마 시대의 식생활 전통이 복원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식품 소비의 문명화라고도 불리었듯이 미식이 강조되면서 고기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17세기에 들어와 좀 더 체계적인 관찰과 정량화가 과학에 도입되면서 식품소비와 체중과의 관계에 관심이 증가하였다. 18세기에는 자연식을 통한 삶의 연장이 강조되면서 식품소비에 도덕적 차원이 도입되었다. 식품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차원이 고려되어 식품 윤리는 더욱 큰 테두리 안에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식량 생산은 이에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식량부족사태가 야기될 것을 주장한 말서스의 인구론(1798년)으로 인해 식품 윤리가 식품 소비보다는 생산측면의 사회적 차원이 인식되기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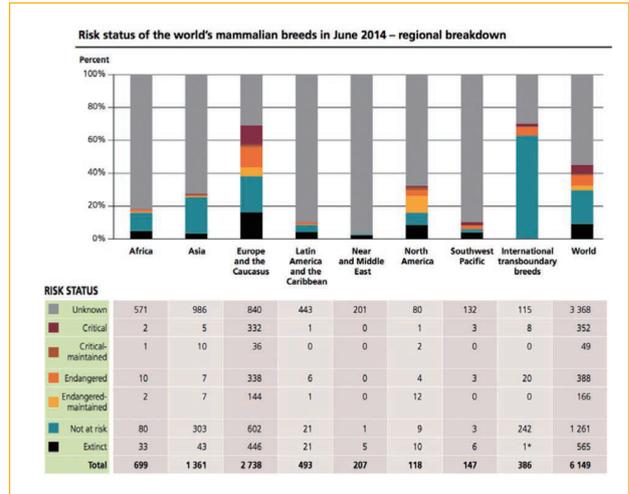
역사적으로 볼 때 전근대 식품 윤리는 식품 소비와 관련된 주제에 집중되었지만 근대 윤리는 식품 생산과 관련된 분야로 전개되었다. 또한 고대 식이요법학은 기본적으로

그림 1. 식량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FAO,2001)



로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하였지만 현대에는 과학적 측정에 기초하게 되었다. 따라서 식품 소비와 신체 변화가 수학적 관계로 표현되게 되었다. 그러나 채식주의에서는 이분법적 구분이었던 “문제가 되고 안 되고, 혹은 오염이 되고 안 되고”가 도덕적 거부의 기준으로서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이것은 동물성 식품이 오염되었거나 건강에 안 좋거나 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안되거나 하는 이유에 기인하지 않고 원초적인 형태의 오염으로 규정해 놓아 그 소비에 윤리적 기준으로 적용한다. 더욱이 현대에 와서는 생산과 소비의 괴리가 심해져서 이분법적 식품 윤리는 포장 표기에 의존하게 되었다. 소비자는 식품공급자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어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식품 생산 시 사용되는 농약, 비료, 보존제, 유전자 변형, 기타 생명공학 기술 등 많은 생산 시스템의 변화가 생산되는 식품에 대해 사회경제적 조건과 함께 도덕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식품 생산에서 생명공학 기술의 활용은 단순히 안전성과 건강 차원의 실용적인 고려보다는 도덕윤리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가 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9세기 이후에 대두되고 있는 식품 윤리의 사회적 차원은 현대에 와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은 세계의 많은 농민들을 소수의 다국적 기업에 종속되게 만들게 됨 때문에 윤리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생산 기술의 발달은 생산 공정을 좀 더 인간적이고 도덕적이 되도록 진보시키지만 동식물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을 높여 생물종 다양성 감소나 멸종 등의 지구적 윤리 문제를 야기하고 가공기술의 활용으로 생산의 비윤리성이 감춰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이러한 식품윤리의 문제들은 소비자의 힘을 활용하여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으로 생산된 식품의 소비를 거부한다면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

그림 2. 가축 품종의 다양성 상황(FAO,2015)



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현실은 식품생산과 소비 단계 사이의 간극이 너무 벌어져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이 어떻게 생산되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소비자 힘이 근본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개별 소비자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식품 윤리를 확립하여 식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과 타협점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식품 윤리란 지구적으로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사용하는 많은 기술들이 지구환경 파괴를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하는 측면, 동물성 식품의 대량 생산을 위해 야기되는 동물 복지 차원, 식량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노동력 착취 문제, 생산 가공된 식량의 유통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 차원, 그리고 식품 소비와 인체건강과 관련한 건강한 식생활 차원 등 식량의 생산, 유통 및 가공, 그리고 소비 차원의 전 과정에 관련하여 우리 인간이 행하고 지켜야 할 도리를 공부하는 학문 분야이다.

2) 농식품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1) 자연자원의 착취

자연을 변형시키는 인간의 힘과 증가하는 인구의 수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자연자원을 위협하고 있다. 바다에서는 더 이상 자연산 어류가 잡히지 않을 정도로 수산자원이 고갈되었다. 산업 생산의 증가로 지역적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지구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를 가져오고 있다. 지구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와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기게 되고 농업생산지역의 이동을 야기한다. 농업용수, 산업용수 및 가정용수의 사용증가로 지하수층의 지속적인 저하를 야기하고 물 부족 상황이 점점 심각해진다. 담수의 과도한 이용은 염수화를 야기하고 중국에는 농지를 포기하게 만든다. 생물종 다양성은 지구상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사항이라고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농업 생산이 전문화되면서 산업 오염물질, 무분별한 산림벌채, 외래종 도입 등으로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다(그림 1). 특히 상업화된 농업 생산은 생산성과 효율성의 미명아래 작물이나 가축의 종을 단일화하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생물종 다양성의 약화는 특정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책이 별로 없다는 위험이 따른다.

(2) 문화 정체성과 다양성 상실

문화 다양성의 유실은 생물 종 다양성의 유실을 그대로 닮았다. 생물종 다양성이 불리한 생태계 변화에 보호막이 되듯이 문화 다양성은 인간실수에 완충역할을 해준다. 어떤 문화들은 자신들의 중심가치를 확실히 유지하면서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기술들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능숙하다. 반면에 어떤 문화들은 변화를 당면하면 무너진다. 시장이 고립되었던 문화를 침투해 들어가면 전 언어, 전 통과 관습, 종교, 식품 종류 및 조리법, 그리고 기타의 사회적 조직들이 멸종의 위험에 처한다. 특히 주된 가치가 비물질인 문화에서 더욱 그렇다.

어떤 문화들은 우세한 국가문화에 부합시키려는 국가 정책에 의해 사라져가고 또 어떤 문화들은 새로운 기술들이 깊이 간직했던 신념을 손상시켜 사람들의 일상의 의미를 빼앗아감으로써 심각하게 손상을 입는다. 어떤 것들은 발전이라는 미명아래 밀려난다. 광고의 확산 그리고 글로벌 식품, 의복, 영화, 음악 등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을

창조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균일화의 과정이 증가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특정 문화의 구성원들이 수동적으로 원하지 않는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우리는 증가한 문화 연대와 외부에서 유도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을 통해 문화정체성의 몰락에 저항해서 싸우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인권

생물종다양성 및 문화 다양성의 동시적 상실은 개인과 전 국민들의 권리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한 편에서는 사람들에게 오래 세월을 거친 방법을 발전에 참여하기 위해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식물 생식질(germ plasm)같은 국제적 물질을 지킬 수 있도록 현대 생활의 간편함을 토착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 양극단은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미래를 자기들이 결정하려는 개인들과 국민들의 권리를 극도로 손상시키는 것이다. 모든 사회에서 충분한 식품을 소비할 권리를 보장하는 전통 메카니즘은 전통적인 가족 단위의 파괴와 가속화된 도시화와 시장, 정보 및 문화의 국제화로 야기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연대의 약화로 퇴색되어진다. 따라서 유엔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획득할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다.

3) 농식품 윤리에서 중요시 하는 가치

(1) 식품의 가치

식품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다. 따라서 배고픔은 인간의 보편적 식량권리의 태만에서 파생한다. 모든 사회에서 윤리적 관행은 식품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수단을 제공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식품을 제공하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음은 비윤리적이라고 간주했고 기아나 영양실조를 해결해주는 행위는 자선이라고 생각했다.

(2) 향상된 복지의 가치

모든 나라들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복지향상은 인간존엄과 자존감을 진전시키는 것이다. 자선은 장기적인 복지 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의 복지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거나 고용을 증대시키거나 교육과 기회를 제공함을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개발 등이 함께 이루어지는 정책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가난은 현대 지구상에서 인간의 비참함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농식품 생산 효율성과 분배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가난을 없애는 것이 윤리적 농식품시스템의 궁극적인 역할이어야 한다. 효율성과 효과성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의 상대적 비용 관점이 아니라 공평성, 정의, 경제적 상호의존성, 개인의 자유, 인권 혹은 국가 주권 등을 희생시키지 않고 농식품 시스템이 시민들, 공동체들, 국가들 그리고 세계가 진정한 글로벌 사회로 진전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러한 글로벌 사회에서는 개인들은 독립성과 존엄성을, 국가는 주권을 지키며 시장경제에 근거한 자유 무역에서 규정을 정하고 적용하는 데에 함께 참여하는 윤리에 근거한 교역 시스템으로 이동해야 한다.

(3) 인체건강의 가치

건강은 기아와 영양실조를 해소함으로써 향상된다. 건강한 사람은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인체건강을 보호한다는 것은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고 안전하지 않은 식품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수십 년간 지구상의 많은 인류가 기아와 영양실조, 빈약한 식사, 안전치 못한 음식과 물로 인한 빈약한 건강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이 빈약한 건강은 사람들이 공동체나 국가 혹은 지구상에서 진행되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켰다. 더욱 대규모의 산업화된 농업과 식품가공은 제대로 관리되고 감독되지 못할 때 새로운 건강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공평하고 윤리적 농식

품 시스템이 기아, 영양실조, 식품 안전성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풍부하고, 영양적으로 충분하고 안전한 식품을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자연자원의 가치

인간세상은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자연자원은 식량과 다른 유익한 물건들을 생산하는 데 이용되고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자연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어떤 자연자원의 사용이 현재나 미래에 자연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 어떤 자연자원 사용도 우리 자손들에게 끝없는 고난과 박탈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현재 글로벌 수준에서 볼 때 식량생산은 자연자원을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주민들의 식생활과 생활표준을 반영하여 식량생산이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도시화, 시장침투 및 국제 교역의 증가로 급속히 변하고 있다. 윤리적 농식품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물적 효율성과 농생물 다양성이 경제적 효율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식량생산이 자연자원을 최소로 이용하여 환경에 대한 압박을 제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식량을 구득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식품안보와 환경보호의 모적을 현명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5) 자연의 가치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인간이 자연을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이 커질수록 자연의 통합적이고 복잡한 성질이나 아름다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을 재구성하는 것을 제한해야한다. 세계 생물종 다양성 협약은 전 세계가 특정 생물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의 그 자체로서도 가치를 인정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이다.

4) 축산식품 시스템 단계별 윤리 주제

(1) 생산/가공/유통단계

역사적으로 볼 때 서구사회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서 산업화의 일환으로 전통적 축산이 축산업으로 발전했다. 기술진보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함께 농업혁명을 가져왔다. 여기에는 무생물 제품을 생산하는 방법을 모방하는 축산 생산혁명이 병행되었다. 이에 따라 축산농민들은 품질, 가격, 신용의 요구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제조업의 생산방법과 기준을 채택하였다. 소위 “공장축산(factory farming)”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으로써 증가된 가축군에 대한 복지와 윤리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감금, 사회적 격리, 과밀, 자연행동 결핍, 수송 중 스트레스 등에 관한 문제들이 동물행동학과 철학을 융합하여 학문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산업화 축산은 사육 시스템의 집약화이다. 더 적은 면적에 더 많은 가축을 사육하며 실내 사육 시스템과 사료 효율을 강화하여 고기 생산, 젖 생산, 알 생산 등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축산이다. 이러한 산업화 축산은 생물종 단일화를 강화하고 농장 대형화를 지향하여 중국에는 농민은 존재하지 않고 기업만 존재하게 된다. 산업화 축산에서는 사육시스템의 집약화를 위해 질병예방이나 성장촉진을 위해 항생제, 백신, 홀몬제 그리고 기타 다양한 수의학 기술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인간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새로운 시설기계의 도입도 증가된다. 이러한 집약화는 축산업을 인간의 욕구(Wants)충족을 위한 측면만을 고려할 때는 비용대비 이익 비교(cost-benefit theory)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가지게 되지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공의 이익 관점에서 보면 축산업은 자연보존과 동물종 보호라는 가치(values)를 고려하여 윤리문제가 제기된다. 축산은 지구 면적의 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산림벌채, 토지황폐화, 오염, 지구 온실가스 생산의 20%를 담당하는 등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파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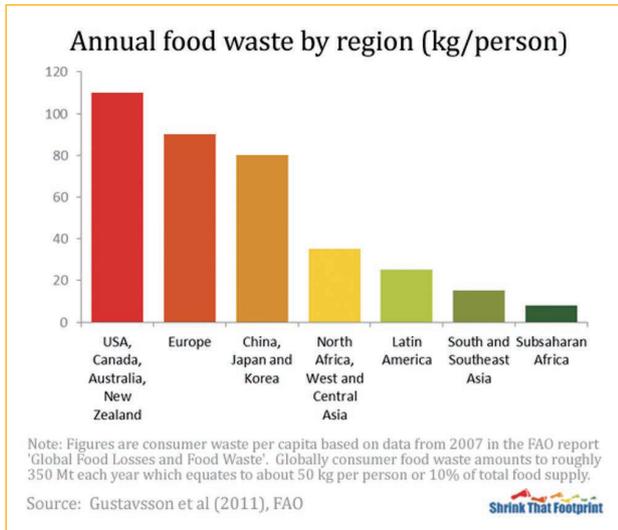
가축에 관련한 인간의 책임문제는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축산에서 가축의 생존이나 생활환경

은 거대한 조방축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간 관리자에 달려 있다. 동물복지에 철학자와 과학자 간에 종종 논쟁이 있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동물의 삶의 질의 여러 면을 취급하고 그것들을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주요 논점이기 때문이다. 현재 널리 이해되고 있는 차원은 동물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상태를 기술하는 과학적 측면과 동물의 삶의 질을 고려하는 도덕적 가치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학자들 간에는 복지는 과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므로 윤리와 복지는 별개로 취급해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동물행동학자들은 동물들이 즐거움, 슬픔, 우울증, 공포, 고통 등을 자각하는 것으로 보고하며 그들도 인간과 유사한 권리를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결국 생산 단계에서는 주된 관심사가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성이다. 식량 생산 환경에서의 풍경의 질에 대한 식량생산의 영향을 고려하여 농식품 생산이 인간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손들에게 건전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최근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의 농식품 생산 독점이 심해지면서 생산농민에 대한 공정한 대우가 윤리 문제로 대두되었고 아울러 세계적인 축산물 수요 증가로 인한 생산 단계에서의 동물복지가 윤리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양돈에서의 거세, 치아 및 꼬리 자르기, 양계에서의 부리 자르기, 육우산업에서의 거세 및 뿔 자르기 등의 사육 기술 측면이나 제한된 축사에서 대량사육규모로 인한 과밀 사육 등은 동물 복지의 주제이지만 넓게 보면 인간의 윤리적 차원이기도 하다.

윤리적으로 생산되는 식량의 안전성과 품질 그리고 건강성은 생산 단계뿐만 아니라 가공하여 유통하는 단계에서도 신경을 써야하는 문제이다. 이것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많은 화학물질들과 가공유통 중의 품질유지 및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많은 첨가물들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이다. 또한 전 과정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 하는 것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고 유통과정에서의 재활용이나 배달빈도의 최소화도 환경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이다. 부정 식품이나 불량식품

그림 3. 지역별 음식물 폐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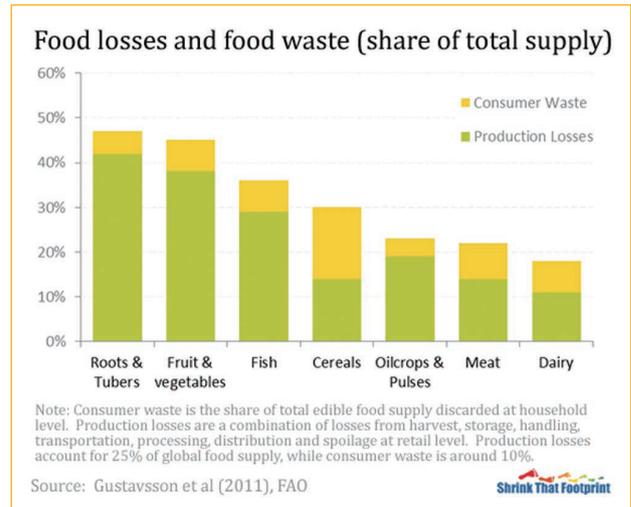
등은 유통단계 종사자들의 윤리적인 문제이다. 중국에서 발생되었던 펠라민 우유 사건이나 브라질에 발생한 부패된 식육의 수출 사건 등은 가공 유통 과정의 윤리의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산 증거일 것이다.

(2) 소비 단계

소비단계에서는 소비자들이 건강한 소비행태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FAO(2016)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굶주림의 고통을 겪는 인구의 수자는 약 8억 명으로 아홉 명 중의 한 명이 되는 반면에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고생하는 숫자는 2십 일 억 명으로 전 지구 인구의 약 30%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음식물 손실은 엄청나서 개도국에서는 식량 생산 후 손실(food loss)이 25%가 되지만 선진국에서는 소비단계에서 폐기(food waste)되는 양이 30%에 이른다. 선진국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 단계에서의 지혜롭고 윤리적인 소비가 요구된다. 세계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연간 7,500억 달러 어치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고(그림) 국내에서는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은 2010년 기준 금액으로 20조원(환경부, 2013)으로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만 연간 8천억 원이 소요된다. 음식물 소비량의 약 1/7이 쓰레기로

그림 4. 식품 종류별 손실과 폐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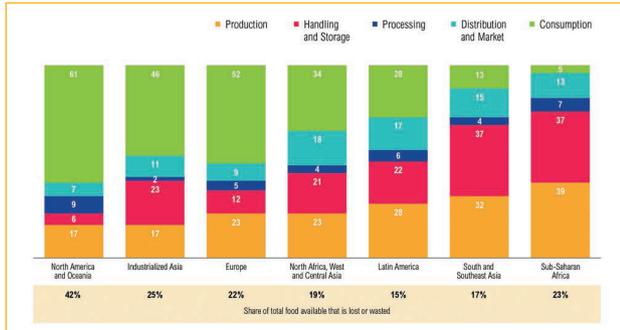
버려지며 가정과 소형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버려진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도록 소비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 탄소 마일리지가 낮은 계절 식품이나 지역식품을 구입하고 수입식품의 구매를 줄이는 건강한 소비를 관행화하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윤리적 소비가 될 것이다. 생산하는 데에 다른 식품에 비해 에너지와 물이 더 많이 소요되는 축산물의 소비를 줄이고 멸종위기의 수산물 소비를 제한하는 지혜를 실천하거나 환경을 염려하여 포장지나 냉동저장에 신경을 쓰는 소비행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유기식품이나 자연 축산으로 생산된 축산물 소비를 늘리고 식품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소비생활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5) 최근경향과 미래를 위한 대안

현대 농식품 생산/유통 패러다임은 윤리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생산성은 강조되고 생물학적 및 화학적 오염으로 국한된 식품안전 정책으로 인해 식생활 관련 질병은 무시당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칼로리, 소금, 포화지방산, 설탕 및 음식섭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서 식품기업들의 무차별적인 식품홍보로 인하여 환경비용 및 인권 손상은 증가 일로에

그림 5. 식량 생산 단계별 손실 혹은 폐기량



있다. 기술혁신으로 생산 및 가공 유통 과정에 소비자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점점 축소되어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소비자들의 GMO작물 및 식품에 대한 불안은 증가하기만 한다.

식품가공 원료수급의 국제적 외부조달(outsourcing)이 증가하여 생산과정의 관리가 미약할 수밖에 없고, 공급사슬 및 연결이 장거리화 하고 다양화되고 있다. 따라서 윤리적 대안이 필요해지고 있다. 생산을 조방적으로 유기농업을 통한 건강식품 및 비GMO 위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식생활 스타일도 인종별 특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공식품보다는 슬로우식품, 기능성 식품을 통한 대안식품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생산 및 가공 유통 차원에서의 투명성은 원료를 포함한 생산 이력제를 위해 관리 차원이 아닌 윤리적 측면이 강조된 소비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실행하면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수입식품이나 국내 생산 식품들에 대한 조세는 윤리적이 지 않은 제품/원료에 대한 조세 강화를 통해 생산가공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식품의 윤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가 구입하는 축산식품에 충분한 가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저가는 항상 비인간적 생산관리로 연결되어 비금전적 가치의 손상을 야기한다. 앞으로 축산식품 분야에서의 다양화는 심화될 것이다. 지역이나 나라에 따라 다양한 윤리적 성향이나 태도, 혹은 구매행태를 보일 것이다. 우리는 한 지역의 소비가 다른 지역의 생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구입하는 값싼 수입식품은 다른 개도국의 어린이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생산한 것일 수가 있

다. 국내 생산물일 경우에도 우리가 싼 가격만 고집하면 생산자들은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품질을 저하시키거나 저질 원료를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싼 값을 고집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동을 강화시키는 의도치 않은 행위를 가져오게 된다.

축산식품 분야에서 생산 가공을 위하여 외부조달(outsourcing)을 하고, 신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환경에 대한 이러한 방법들의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우리 소비자들의 무관심은 빈부의 양극화를 증대시키고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생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신뢰성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시대에는 생산자들이 소비자들과의 직거래를 통한 신뢰회복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식품 선택은 개인적이지만 집단적 성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은 매우 중요한 윤리적 사안이 될 것이다.

식품 시스템이 좀 더 윤리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생산과 식품형태의 다양화. 2차 대전 이전에는 식품은 모든 나라와 문화권에서 자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식품 시스템의 다양화(집약적 혹은 조방적 생산, 유기생산, 유전자 변형 혹은 비유전자 변형 식품, 건강식품, 즐거움 식품 등)는 다양한 식품 문화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정당화된다. 식품의 정치화와 문화화 경향이 점점 증가하면서 식품은 윤리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대에 가장 우세한 식품 형태 중의 하나인 즉석식품(fast food)의 윤리적 문제에 반하여 다양한 식품이나 생산 형태, 슬로우 푸드, 건강식품, 대체 식품 망(networks), 국제 식품 등이 점점 더 강조어진다. 둘째, 투명성. 서양의 많은 식품 회사들이 정부 보조금 수령에 대해 일반에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위생불량이나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처벌을 받은 사항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부는 점점 결과 보고서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력추적제의 적용이 가장 중요하며,

식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야 하며 위해관리에서 리콜 제도의 채택도 중요하다. 이력추적제는 윤리적 관점에서 정보제공이라는 차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 셋째, 과세. 건강하지 않은 원료들(예: 다가포화 지방산, 소금, 설탕 등)에 세금을 매기는 것은 식품 시스템을 좀 더 윤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암, 심혈관계 질환, 비만 등과 같은 식품 관련 질병들로 인한 증가하는 비용에 대해 식품 산업계는 책임을 느끼고 그것을 지불해야 한다. 건강한 식생활을 구성하는 것이 판매되는 식품만이 아니고 개인의 생활형태나 부적절한 영양관리에도 기인하기 때문에 식품회사 자체만을 비난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포화지방이나 특정 식품(칩, 버거 등)에 과세를 하는 것은 관련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식품 가격의 증가가 소비를 억제함을 고려하면 취약한 소비자들(청소년

및 무지한 소비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건강한 식품(예: 채소, 신선 과일 등)에는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다. 넷째, 충분한 가격 지불. 식품 가격이 일정 수준이하로 책정되면 동물 복지와 그 밖의 윤리적 가치가 훼손된다. 비록 모든 사람이 식품을 입수가능하게 하는 것이 윤리적 필요조건이지만 이 조건은 다른 것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더욱 저렴해지는 식품 가격은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비인간적 관리, 동물복지의 훼손, 노동의 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낮은 식품 가격은 생산농민들의 복지를 손상시키고, 고용인에게 살아가기 힘든 저임금을 받게 만들고 혹은 비금전적 가치, 자연경관의 파괴 등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참고문헌

1. Zwart, Hub, 2000. A short history of food ethics. *J. Agric. Environmental Ethics*, 12: 113–126.
2. Coveney, John, 2000. *Food, morals, and meaning: the pleasure and anxiety of eating*. Routledge, London.
3. Coff, Christian, 2006. *The taste for ethics – An ethic of food consumption*. Springer.
4. Mepham, T.B. 1996. *Food Ethics*.
5. FAO, 2001. *Ethical issues in food and agriculture*. FAO Ethics Series 1.
6. Korthals, M. 2013. Ethics of food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Oxford Handbook of Food, Politics, and Society*.”
7. Harfeld, J. 2010. *Husbandry to industry: Animal Agriculture, Ethics and Public Policy*. Centre for Bioethics and Nanoethics, Aarhus University.